

항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순석(임영득) 김종진(한안나) 맹지혜(임기빈) 박윤 박찬 서진화(최봉순) 석형기(이희순B) 송부현(김영진) 여운희 윤정호(유욱자) 이난수(방원식) 이명희(문영원) 이복현(지상건) 이상희 임형훈(박금옥) 장영원(김욱자) 조규영(윤혜란) 천세력(영명분) 최승걸(이미향) 최순재 최정규(김미희) 최정순 황영옥 무영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병욱(이영숙) 김욱자(장영원) 맹지혜(임기빈) 박권재(송영숙) 새 롱 송부현(김영진) 여운희 윤병호(양영옥) 이난수(방원식) 이명희(문영원) 이복현(지상건) 이오순(김형국) 이희순B(석형기) 임영득(김순석) 장영원(김욱자) 조규래 천세력(영명분) 최봉순(서진화) 최순재 황영옥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김경엽(손경아) 김병욱(이영숙) 김정연B(강준식) 김중익(박애순) 박건용 박부홍(최귀남) 박순자(이동수) 방복순 백경자(김창길) 백성원(안지영) 석형기(이희순B) 영명분(천세력) 윤정자(최정선) 이미지 이종문 임영득(김순석) 전순복 조규래 채명엽(서시월) 천영란 하세현 무영1 무영2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성 김준구 김혜란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승현 박준홍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지 이상희 이소은 이숙에 이아은 이옥남 정승현 정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심미 황영옥 무 영

📍 월정현금

주간 성경연구

21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 22절		
월요일	고린도전서 10장23절~11장1절	목요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 ~ 34절
화요일	고린도전서 11장 2절 ~ 16절	금요일	고린도전서 12장 1절 ~ 11절
수요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 ~ 26절	토요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 20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욱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석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재호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김선희	
찬 양 대	지 위 자	할 켈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은 · 에 덴 : 최원지 앤 셸 :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글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정예슬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신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욱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 국 : 최옥희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줄거운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2. 05. 15.

레위기 6장 8-13절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설교: 이진우 목사

성도의 삶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단과 장막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장막인 것입니다.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불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요, 계명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신앙의 행위란 결국 제단에 불이 있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고, 때론 불이 꺼진 다른 사람에게 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진 불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할 때 여호와와 불이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단은 구약시대와 같이 돌단을 쌓는 제단이 아니라 성도의 예배와 기도, 희생과 봉사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 같은 자녀들이 더욱 신앙으로 자라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단에 불을 항상 피우고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까?

1. 우리 속에 있는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 우리 속에 불이 있으나 없으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일 듯 하게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권면했습니다. “네 속에 있는”이란 성도의 마음, 즉 심령 가운데 있는 “열심”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심령 가운데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불이 사그라지면 악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불이 아니고서 악한 자의 불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일 듯 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 말씀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직책 또한 은사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직분자, 봉사자,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보다 우리 심령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며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성령의 불이 약하고 꺼져가는 자녀들에게 더욱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나누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가정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 가정 제단은 축복의 불입니다. 자녀들의 축복은 가정 제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구제함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고별료의 가정과 딸들이 예언한 빌립의 가정은 모두 가정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가정들입니다. 시편 128편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정 제단의 불이 꺼지면 그 가정에 악한 영이 틈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더욱 악이 가득하고 시대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정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불로 능력을 입어 이 시대 참된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교회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 교회 제단에 성령의 불, 사랑의 불, 믿음의 불, 기도의 불, 선교와 전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 제단은 믿음 훈련의 도장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로 상담하는 곳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제단에 항상 불이 있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길이 항상 위로 올라가듯이 불 있는 제단은 기도가 올라가고, 감사와 찬송 성도의 마음과 헌신과 봉헌한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제단에 항상 불이 있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구제에 힘썼고, 서로 헌신하며 섬기는 봉사에 힘썼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이러한 성령의 불이 교회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매일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진정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의 제단과 가정 제단 그리고 교회 제단에 꺼지지 않고 항상 뜨겁게 타오르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8 - 21

2022. 05. 22.

대한예수교장로회

성 현 교 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담 임 목 사 Senior Pastor	이 진 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이지: www.sunghyeon.or.kr

